

다니엘서 - 제192번

숨겨진 역사의 베일을 벗기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적 대응과 14만 4천의 인침

Jeff Pippenger

2024-04-22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1989년 끝의 때에 그 기록된 증언이 끝난 이후부터 41절의 주일법에 이르기까지를 가리킨다. 그 감추어진 역사는 마지막 날들의 모든 예언적 선들을 그 위에 정렬시키는 틀을 가리키는데, 14만 4천의 인침이 바로 그 감추어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역사에서는 짐승의 형상의 형성과 관련된 시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짐승들의 형상에 관한 감추어졌던 꿈의 인봉이 풀리는 역사이다. 그 감추어진 역사란,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에 관한 감추어진 역사가 다니엘 11장 2절에서 끝나 3절에 맞추어 정렬되는 곳이다. 그 감추어진 역사는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며, 주일법에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인봉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모든 진리의 선들은 일곱째이자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표상된다.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5절은 그 감추어진 역사와 맞춰져야 하며, 그중 마지막 세 절은 세 가지 예언의 선을 제시한다. 그것들은 교황권이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때를 지목하는데, 이는 다니엘 11장 14절에 나타난 예언적 역사 속으로 이교 로마가 처음 들어온 기원전 200년에 그랬던 것과 같다. 그 구절과 이교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 구절이 성취된 사실은 그 이상을 확증하였다. 이는 이교 로마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 뒤 몰락한 권세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배도한 개신교는 그 구절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했지만, 밀러주의자들은 그것을 이교 로마에 적용하여 그 구절을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시험하는 진리로 규정했다. 오늘날 현대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의 신학자들은 다시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가르치므로, 그것은 다시금 시험하는 진리가 된다.

그것은 시험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구절과 그 성취가 기원전 200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두로의 음녀(현대 로마)가 사탄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밝혀 주며, 교황권이 말세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고, 그러므로 말세의 주된 시험 진리를 대표하는데, 이는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에서의 논쟁이 대표하는 시험 진리와 일치한다.

그 세 구절은 또한 땅의 짐승의 공화당 별의 계보를 나타내며, 1989년 끝의 때에 로널드 레이건으로 시작된 대통령들의 계보 속에서, 일곱 명의 대통령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면서 밝게 될 예언적 단계들을 식별한다. 12절의 라피아 전투 이후, '안티오코스'는 먼저 미국 내 반란을 진압하고, 이어 파니움 전투에서 이집트로 상징되는 글로벌리즘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트럼프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악티움)을 촉발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라피아 전투에서 이집트에 패배했지만 파니움 전투에서 승리로 보복한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에 의해 예표되었다.

13절에서 '수년 후', 유라이어 스미스가 말하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자기 왕국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동방 지역들을 복종시키고 안정시킨 뒤, 젊은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사업이든 할 여유가 있었으며; 자신의 지배를 확대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전 것보다 더 큰 막대한 군대를 일으켰다." 트럼프는 먼저 자기 왕국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그가 이전에 패배했을 때보다 더 큰 군대를 준비할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에 패배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글로벌리즘을 대표하는 무신론의 짐승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선거를 훔쳤을 때 일어난,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취였다. 그리고 두로의 음녀의 주요 대리 군대로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때에도 그것은 또한 패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구절에서 세 번째 예언적 선은 마카비의 선으로,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의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려 한 시도에 맞선 그들의 반란으로 대표되는 배도한 개신교의 선이다. 트럼프의 선과 배도한 개신교의 선은 궁극적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된 그 뿔로 합쳐질 두 권세를 대표한다. 13절부터 15절은 일요일 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며, 배도한 개신교와 배도한 공화주의의 두 선은 그 두 권세가 서로 한데 모여 일요일 법에 앞서 교회와 국가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전 글들에서 우리는 1776년, 1789년, 1798년이라는 연도로 대표되는 세 사건, 곧 독립선언, 헌법, 그리고 외국인 및 선동법이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지목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러므로 그 세 이정표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종말로 이끄는 세 가지 이정표를 나타낸다. 우리는 또한 1776년부터 1798년까지 이어지는 22년이 14만 4천의 인침의 때를 상징함을 확인했는데, 숫자 22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역사가 '진리'의 표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이정표가 각각 독립의 수립과 독립의 상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 이정표 모두 땅의 짐승의 주요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모두 미국의 '말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가의 말함은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이다.' 중간 이정표인 1789년과 헌법은 열세 개 식민지에 의해 비준되었고,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는 열세 번째이다. 또한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22년은 히브리 알파벳을 구성하는 22개의 글자와도 일치한다.

우리는 또한 1798년의 Alien and Sedition Acts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시점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배도한 개신교의 노선의 일부인 유대인들과 로마의 동맹의 역사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시기를 나타내며, 그 우상의 형성은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것은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161년부터 기원전 158년까지의 유대인들의 동맹은, 14만 4천에 속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치르게 되는 그 시험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유대인의 동맹으로 상징되는 기간이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그 동맹이 기원전 161년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반면, 밀러주의자들은 그것이 기원전 158년의 일이라고 가르쳤고, 그 사실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두 개의 성스러운 도표 모두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사가들이 유대인들과의 동맹을 기원전 161년으로 비정한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밀러파가 기원전 158년이라고 지목한 것이 옳은지 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쪽을 고르든, 그 선택에 동의하는 집단이 있다. 문제는 역사가들과 밀러파가 모두 옳은지,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동맹에 관한 진실이 역사에서 가능한 둘 중 하나의 단일 시점이 아니라 사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지 하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로마와 유대인의 동맹이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며, 그 기간이 짐승의 형상 형성을 예표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타당하다고 믿는 성별된 논리를 제시해 왔다. 이렇다면 로마와 유대인의 동맹을 하나의 기간으로 받아들여서는 결단 자체가 시험이 되며, 그런 예언적 의미에서 그것은 짐승의 형상 형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라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원전 158년은 마카비로 알려진 배교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의 동맹이 굳게 확립된 때를 가리키며, 따라서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이는 성경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기원전 158년은 또한 배교한 개신교가 교황권과 손을 맞잡는 장소와 때를 가리키며, 기원전 161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158년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기간을 가리킨다. 그 기간이 배교한 개신교가 배교한 공화주의와 연합하게 될 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두 배교한 권세는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으므로, 몇 가지 공통된 이정표를 공유한다.

1776년, 1789년, 1798년을 2001년 9월 11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으며, 그 뒤를 2021년 1월 6일과 연관된 거짓 깃발 운동에 대한 펠로시의 재판과 바이든의 도둑맞은 선거에 따른 취임기가 있고, 이는 일요일법으로 이어진다. 이 적용에서 2001년 애국법은 독립선언서와 상응하여 독립이 박탈되기 시작함을 식별하는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펠로시와 시프의 캔거루 법정이 헌법 비준과 상응하는 두 번째 이정표가 되어, 이로써 헌법 전복의 시작을 예표하고, 이어서 미국이 용처럼 말함을 나타내는 외국인 및 선동죄법의 세 번째 이정표가 뒤따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이정표들을 적용하는 것은 마카베오로 대표되는 배도한 개신교의 이정표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배도한 공화주의와 연관하여 세 이정표를 식별하면 약간 다른 적용이 나온다. 2001년 9월 11일은 1776년과 일치하지만, 배도한 공화주의에 있어서 1789년은 외국인 및 선동법과 일치하며, 그 '법들'과 일요일 준수와 강제로 대표되는 용의 말하기 사이에 구별을 설정한다. 두 선을 짐승의 형상 시험의 맥락 속에 함께 놓으면, 그것들은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는 예언적 구조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시험은 짐승의 형상의 형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곧 말세의 그 백성이 정치적·종교적 세계에서 그 형성을 알아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대표되어(형성되어) 있는 그대로 짐승의 형상의 형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1년 1월 6일의 펠로시 재판이 어떻게 외국인 및 선동에 관한 법률과 부합할 수 있을까? 펠로시 재판은 글로벌리즘을 부추긴 부유한 대통령을 막 죽인 무저갱의 짐승이 벌이는 축하를 상징한다. 그 축하의 역사는 바이든의 취임 시기에 시작되었고,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으로 끝나는 시기를 가리킨다.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세 번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가운데 것은 성경이 '거짓의 아비'로 지목하는 권세에 의해 그의 승리가 도둑맞았다는 것이다. 도둑맞은 선거로 시작된 펠로시 재판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할 때 시작되는 두 번째 일련의 보복성 펠로시 재판을 가리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일련의 펠로시 재판으로 시작해 일련의 펠로시 재판으로 끝난다. 둘 다 정치적 재판이지만, 두 번째 일련의 재판에서 기소된 이들은 첫 번째 일련의 재판을 주도했던 이들도이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은 기원전 164년을 기념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은 기원전 164년으로 상징되며, 유대 성전의 재봉헌은 정치적 성전을 두 번째로 재봉헌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해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해였으며, 그는 그리스의 종교적 관행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하여 기원전 167년의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키게 한 권력이었다. 2025년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그리스의 종교(글로벌리즘)는 미국에서 완전히 제압될 것이고, 사탄의 기적들이 교회와 국가를 결합시키는 일에 힘을 실어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트럼프는 외국인 및 선동법에 상응하는 행정명령들에 서명하여 짐승의 형상 형성의 시작(기원전 161년)을 알리게 될 것이며, 그는 두 번째 펠로시 재판 시리즈를 시작할 것이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기간의 시작을 알리며, 그 기간은 기원전 158년이 전형으로 보여 주듯이 일요일법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트럼프가 주류 언론을 폐쇄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며, 민주당의 음모에 연루된 자들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로 시작된다. 그 기간의 시작은 트럼프에 의해 초래된 정치적 박해로 특징지어지며, 그 끝은 종교적 박해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1789년과 헌법의 중간 이정표는 2021년의 펠로시 재판이며, 이는 시작과 동일한 역사로 끝나는 기간을 나타내지만, 마지막의 펠로시 재판은 현재 기소되어 투옥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역전이다. 배도한 개신교 노선에서 두 번째 이정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를 포괄하는 펠로시 재판이며, 그 기간은 2025년 1월에 끝난다. 배도한 공화주의 노선에서의 1789년의 이정표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 직후 곧바로 이어지는 행정명령들과 함께 도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가 용 같이 말하는(외국인 및 선동죄법) 시기를 시작하며, 그 시기는 국가가 용 같이 말하는 일요일법으로 이어진다. 그 기간 동안 1789년으로 대표되는 헌법은 점진적으로 전복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그는 일곱 중에서 나온 여덟째 대통령이 되며,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것은 개신교와 공화주의의 배도한 뿔들이 하나의 뿔로 합쳐지고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개신교가 쥐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로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14만 4천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곧 다가올 주일법의 때에 참된 개신교의 뿔로 높여지기 전에 미리 인침을 받는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인침의 메시지는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그 부분이다. 봉함이 풀리는 그 부분은 다니엘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이며, 13절부터 15절은 그 감추어진 역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는 그 메시지, 곧 느부갓네살의 짐승들의 형상에 관한 감추어진 예언적 메시지로 예표되어 온 그 메시지는, 13절부터 15절에서 마카비와

안티오쿠스 3세로 대표되는 개신교와 공화주의의 배도한 뿔을 나타내는 두 막대기의 결합에 관한 바로 그 메시지이다.

짐승의 우상의 형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는 참된 개신교의 뿔을 인치는 성화를 전하는 메시지이다.

14절에서, 기원전 200년에, 이교 로마가 처음으로 예언적 서사에 소개되는데, 이는 안티오쿠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결성한 이집트 반대 동맹으로부터 이집트의 새로 즉위한 유아 왕을 보호하기 위해 이교 로마가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해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상대로 파니움 전투를 벌였다. '환상을 세우는 네 백성의 약탈자들'의 등장과, 안티오쿠스와 필리포스 사이의 동맹, 그리고 파니움 전투가 모두 그해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이정표는 지상 짐승의 공화주의 뿔을 예표하는 안티오쿠스와, 그리스의 고대 명칭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유엔을 예표함) 사이의 동맹을 지목한다.

예언적 차원에서, 파니움 전투에서 용(마케도니아)과 거짓 선지자(미국) 사이에 동맹이 맺어진다. 그 동맹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집트의 영토를 분할하는 것이었으며, 이집트는 붕괴하는 러시아를 상징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니움으로 데려가셨을 때, 그곳은 당시 가이사레아 필리피라 불렸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필리피가 그 도시의 복원을 완수하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으니, 곧 가이사레아 필리피이다. 그들의 관계는 로마와 로마를 상징하지만, 필리피는 카이사르에 비해 더 작은 로마이며, 예언적 차원에서 헤롯 필리피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가이사레아 필리피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헤롯 필리피가 거짓 선지자를, 카이사르는 교황권을 대표함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파니움의 예언적 역사는 두 가지 연합을 제시한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트럼프)가 용(유엔)과 손을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트럼프)가 교황권(가이사)과 손을 잡는 것이다. 16절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표상되며, 바로 거기에서 삼중 연합이 시행되지만, 그 구도는 실제로 15절과 파니움 전투에서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이미 마련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붙잡고, 또 그 손을 무저갱 너머로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며, 이러한 삼중적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프로테스탄트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조처를 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고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복음에 담긴 크고 영원한 진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부지런히 탐구함으로써 드러난다. 신적 스승께서는 진리를 겸손히 구하는 자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진리들이

그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도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지식의 길은 없다. 구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주의함으로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진리를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는 권면을 받는다. 주께서는 진리를 참으로 구하는 자의 깨달음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가 계시의 진리를 파악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시편 기자가 그의 눈이 열려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갈망할 때, 마음은 더 나은 세계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오직 신적 교사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는 경건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운다.

말씀에 영감을 주신 분이 곧 말씀의 참된 해석자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자연의 단순한 법칙들과 그들이 날마다 보고 만지는 친숙한 사물들로 돌리심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연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끄셨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유의 뜻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위대한 스승께서 영적 진리를 결부시키신 그 사물들과 날마다 접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그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신 신적 진리의 교훈을 분별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의 사명의 진리를 확신하여 복음으로 회심하였다. Sabbath School Worker, 1909년 12월 1일.